

2021년 교회표어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사7:11)

## 공홀히 여기는 자 : 원수를 품는 공홀

- 사도신경
- 찬 송 498장
- 기 도
- 성경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 삶 나누기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경험을 말해봅시다.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말씀나누기

성경에 쓰인 공홀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 즉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를 안타까워하여 살피주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은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 즉,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과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신을 보며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것을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복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면을 채워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옳은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채움을 입은 사람은 고통에 처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살피주는 공홀의 복을 얻습니다. 죄의 결과를 정죄하기 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그의 회복을 돕는데 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시면서도 그것에 묶여 고통받는 우리를 공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홀한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며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공홀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죄인이 은혜와 공홀을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의식’을 갖고 자신이 입은 공홀로 타인을 공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홀을 베풀 힘과 여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

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 정의를 뛰어넘는 긍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긍휼은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비록 상대가 나에게 배려했는가 혹은 악을 행했는가와 상관없이 빈마음으로 그가 지금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안에서 길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가를 보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의 죄를 보는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여러번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시작에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복에 영혼을 주지 않고 팔복의 심원한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려주시며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동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으려는 동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예수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긍휼을 실천하는 삶

우리는 곤고한 세월을 지나 애통해 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의 고비를 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서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 마음은 우리를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은혜의 인생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 말씀 나눔

1. 죄인의식과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 나는 둘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2.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